

순천시, 한·중·일 평화포럼 준비 박차

전문가·교수 17명 추진위 발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논의
10월 순천만국가정원 등서 개최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발족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한·중·일 평화포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갔다. 2019 순천 평화포럼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2021 한·중·일 평화포럼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평화포럼 추진위원회는 ▲생태·환경 ▲역사·문화 ▲국제·평화 ▲대의 홍보 등 4개 분과로 나눠 총 17명의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자문과 초청 연사 섭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첫 회의에서는 송재훈 우석대 교수를 추진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 프로그램 구성과 초청 연사 섭외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일반적인 포럼이 전문 주제로 참석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일상의 평화'를 모색하는 순천 평화포럼의 차별성은 대중에게 친근한 콘셉트와 다양한 시민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에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추진위원회는 역사·문화·생태와 관련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2021 순천 평화포럼 세부 주제를 과거 화해 평화(정유재란, 귀 무덤 봉환 등)와 생태계 평화(미래 공존, 기후변화 대응)로 구성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평화포럼 추진위원회는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해 8월 중순까지 주제 프로그램과 초청 연사를 확정하고 지역 역사·문화 기관단체와 연계한 부대행사 구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미래 평화 세대인 청소년 참여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업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순천 평화포럼은 도심 어디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계 평화'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또 지역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지역,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이 확산되는 평화도시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추진위원회를 통해 안보·통일의 평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 공존과 병영, 마음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순천 평화포럼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2022년에는 세계 평화포럼으로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모두에(愛) 티켓 나눔' 운동 추진

영화 티켓 기부 범시민운동

순천시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순천형 권분(勸分)운동인 '모두에(愛)티켓 나눔 운동'을 추진한다. '모두에(愛)티켓 나눔 운동'은 순천형 권분(勸分)운동의 연장선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 티켓을 기부하는 범시민운동이다. 나눔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영화인 '학교가는 길'을 시민들이 관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영화 '학교가는 길'은 17년째 전무했던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의 열정적인 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모두에(愛)티켓 나눔 운동은 오는 23일까지 기

부금을 모집해 영화상영 일정을 확정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8월6일부터 3일간 총 6회 CGV순천점에서 상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영화상영 일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두에(愛)티켓 나눔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형 권분운동은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이 늘자 이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시민운동이다. 시즌1 권분구름미 전달부터 시즌2 마스크 전달, 시즌3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 시즌4 권분가게 운영, 시즌5 어깨동무가게 지정까지 이어지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육성 옥수수 명칭 '섬섬여수옥수수'

여수시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옥수수 브랜드명을 '섬섬여수옥수수'로 최종 확정했다. 여수시는 여수 옥수수 향토사업단과 용역사가 발굴한 브랜드명 5개를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섬섬여수옥수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섬섬여수옥수수'는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인 '섬섬여수'와 '옥수수'를 결합해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시민 설문 등을 거쳐 디자인을 선정 후 상표출원 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특색 있는 디자인 개발로 여수 옥수수의 소비자 인지도와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남도 주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 구축, 홍보마케팅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젊은층 주택자금 대출이자 광양시가 책임집니다

5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

젊은 도시 광양시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안정 인구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등 7개 도시개발사업 단지에 4000여가구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가 젊은 층과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에 최대 150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광양형 주거 안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증금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양시 대표 주거복지 사책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청년들의 사회 적응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이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으로 최대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으로는 최대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까지 총 621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가구는 106가구 166명으로 집계돼 청년 인구 장기 정착 유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보인다. 더 많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혜택 제공을 위해 향후 신혼부부, 대상 주택 가격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 등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증금 지원사업은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최대 18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16가구에 약 1억7000

만원을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다자녀 가정 기준도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은 9월말 추진될 예정이다.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18-39세 광양시 거주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에게 주거비를 최장 12개월간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58명의 지원자에게 총 54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45명이 신규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광양에서 거주하는 젊은 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공동주택 신축에 발맞춰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감형 복지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별교읍 복지업무 관계자들이 지역 어르신을 찾아 마스크와 콜매트를 전달하며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

보성 별교읍 폭염 속 복지사각 발굴 총력전

보성군 별교읍이 폭염 속 복지사각지대 행거기에 나섰다. 19일 별교읍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역 내 생계·주거·의료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봉사 등도 함께 이뤄졌다. 위기가구는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지원·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복지·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은 물론 후원 물품과

생계비·주거환경개선·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별교읍은 아울러 최근 폭염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 콜매트 200개를 긴급 구입해 저소득층 등 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사각지대를 방문한 선남규 읍장은 "코로나19와 폭염에 더욱 힘들어 할 소외계층을 집중 발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